

핵의학전문기사 제도 :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입장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진 광 호

새 천년을 맞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고 있는 의식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 핵의학기술 전문분야에서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의 환경에 맞도록 잘 조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 하므로 우리 나라 핵의학기술 분야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국, 일본의 현재 추세와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의 도입과 방향을 알아보면 좋겠다.

한국의 핵의학기술학의 발자취

1977년 1월초 김장휘, 서일택 선생님 등 23명이 주축이 되어 원자력병원에서 최초 발기인 대회를 열고 "대한핵의학기술학회"라는 정관 및 임원을 추진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초기 학술대회는 동년 3월 3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및 용량분석과 표준검사법 등이 발표되었다.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해 오다가 1983년 보건사회부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강화 지침에 의거하여 기술학회의 회원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연구학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하 검사학회로 분산되어 핵의학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양 학회의 임원들이 모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1998년부터 학회지를 한 권으로 통합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국제학회 및 학술참여의 기회는 1984년 제3회 아시아·오세아니아 학술대회, IAEA 후원으로 1995년 1차로 한국의 주요 병원 기사장 중심으로 r-camera QA 교육, 1996년 2차는 중국 등 동남아 7개국 의사, Ph.D 등을 대상으로 multi-head SPECT system 교육 훈련 등에 참석하였고, 1999년에는 IAEA 지원 원격 핵의학전문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침서 번역을 핵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핵의학전문기사(CNMT)제도의 역사

미국에서는 각종 자격제도 또는 인증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핵의학 기술부문에서는 1977년 핵의학기술학회에서 전문기사제도를 만들어 1978년 9월 15일 미국 최초 652명의 CNMT (Certified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가 탄생하였다.

초기의 자격 취득자들은 물리학자, 생물학자,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핵의학분야에서 8,000시간(4년) 이상 근무해야만 시험 볼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자격제도를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로, 핵의학검사를 하면서 전문지식과 업무의 통일성, 둘째로, 핵의학기술의 광범위한 지식 습득과 임상실습의 결여가 있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는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졸업생도 미국 CAHEA (Committee on Allied Health Education and Accreditation)으로부터 교육인가를 받은 곳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시험 볼 자격이 부여되었다. 학회 활동은 현재는 미국핵의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6월 초에 개최되고, 가을에는 미국 각 구역별 조성된 Greater New York 등 15개 group chapter에서 각자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지의 발행은 년 4회 발행하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배부되고 있다. 또 핵의학기술분야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CNMT 자격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 뒤에 CNMT를 붙일 수 있다.

일본 핵의학전문기사 제도의 역사

일본에서는 1971년 교토대학병원이 중심이 되어 초창기 핵의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약사, 물리학자, 방사선사, 임상위생사 등이 모여 "핵의학기술연구

회”라는 모임단체를 만든 것이 효시이다. 1980년도에 학회를 확장하여 “핵의학기술학회”라는 학술단체를 정식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초창기 멤버인 약사, 물리학자 등은 은퇴하고 방사선사, 임상위생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문기사제도의 운영은 학술발표 및 학회 참석 등을 점수화하여 합계 1,000점 이상이 되면 “핵의학전문기술자 인증서”를 기술학회 명의로 수여한다. 이렇게 기술인증서를 부여함으로써 회원의 자질향상과 핵의학기술유지 등이 주목적인 것이다.

학술대회는 년 1회로하고 대개 7월 초에 개최된다. 중앙과 지방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근래에는 신청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특이한 점은 개최지의 실행위원장은 1년 전에 뽑아서 학술대회 준비의 여유를 주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경비 및 회비관리, 학술지 출간, 회원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다.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in vivo, in vitro, PET, 안전관리, 해외학회 참관기, 일본국내소식 등 회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있다.

한국의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의 도입 방향 제시

지금까지 핵의학기술발전을 형성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걸맞게 핵의학 전문기술분야에서도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 국내기술학회지 쇄신, 핵의학전문가를 위한 교육자료집 발간, 법적인 제도확립 등 해야 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다.

이중에서 법적인 제도확립과 회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핵의학기술 교육과정이 전문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IAEA 교육과정에 조금 더 제외검사(In vitro) 국내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보강하고 강화시킨다면 한국의 핵의학전문기사 제도에 뿌리를 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지와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